

법회안내

기원정사(0342)713-0180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통인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1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4시

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주지 법경스님

유달산 관음사(0631)44-5725

초상일법회

매월1~3일

(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오전10시



○주지 일호스님

율곡사(062)263-4575

초상일법회

매월1~3일(음)

오전10시

초이레전법회

매월7일

(음) 오전10시



○주지 혜림스님

대전 지장암(042)221-6208

산중기도

매월1일(음) 일제 오전10시

3시30분

산중기도

매월3일(음) 화향 오전10시

3시30분

문수보현기도

매월4일(음) 오전10시

3시30분

지장암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참일장안화합회

매주 화요일 오후7시

3시30분

사제법회

매주 수·일요일 오전10시

3시30분

호암사(02)803-4779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일제 오전10시30분

초하루법회

매월3일(음) 화향 오전10시30분

약사재일법회

매월8일(음) 오전10시30분

인동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백중기도

6월4일~8월11일(음) 오전10시30분

참석기도

8월11~9일(음) 오전10시30분

정암사(0398)591-6825

일반신도

백상화합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장년부인회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오후7시

학생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람·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은 국민의 작은 정성을 모은지 한달여 만에 저축계약고가 1조원을 돌파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9일, 외채극복을 위해 3조원 저축운동을 펴기로 하고 지난 달 7일 한일은행에 '경제살리기 국민저축통장'을 개설한 이래 이날까지 모두 1조1백80억원의 계약고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국채보상운동'이라 불리는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24만18천여명, 새마을지도자로부터 유치원 어린이, 회사원, 노인, 주부, 군인 등을 망라하고 있다. 우리는 왜 근검·절약하며 살아야 하는지 경전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나는 일체의 옷을 저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또한 저축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민일 옷을 저축함으로써 곧 악하

이렇게 들었다

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더하게 하고 착한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런 옷을 저축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착한 법을 더하게 하고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러한 옷은 저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음식 등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리라. <중아합경>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오늘부터 나무가 필요할 때에만 나무를 구하고 풀이나 수레나 일꾼이 필요할 때에만 그것들을 구할지니라. 부디 스스로 금은 따위의 보물을 받지 말아야 하느니라. <집아합경>

그룩한 산해진미 군침을 삼키지만 조 절해 먹지 않으면 도리어 화가 되네, 하물나 장수함은 절식(節食)이 원인이나 그대 양을 알면 수명을 보존하라. <집아합경>

이 몸이 영원한 줄 어이해 믿었고고, 수행을 멀리하고 낭비를 일삼으며, 익혀온 악업 습기 즐기 다했더니, 노병에 꼭 앓으니 후회해 무엇하리. <법구경>

비록 백년을 오래 살라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루동안이나 부지런하고 마음이 굳센 것만 못하느니라. <출요경>

절약 낭비 일삼으면 노병에 후회

세존이시여, 제가 오늘부터 보리를 얻는 그날까지, 자신을 위해 재물을 받거나 모이지 않고 모든 재물은 가난하고 고생 많은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데에만 쓰겠습니다. <승만경>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격정하고 재산이 없으면 또 재산에 고통받는다. <대무량수경>

친구로서 남에게 물건을 기증하는데는 다섯가지 뜻이 있으니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가까이하여 뜻을 얻는 것, 존중하는 것, 오래 마음을 통하는 것, 내

것을 쓴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근본설일체유부>

나쁜 친구와 친해져서 재화를 구함은 비도(非道)이다. 기생과 가무를 즐기기 위해 재화를 구함도 비도이다. <중아합경>

재물은 종종 번뇌죄업의 인연이 된다. 지계 선정 지혜와 같은 중종의 신법은 열반의 인연이 된다. <대지도론>

절약하되 재물이 탐욕을 일으키면 그 탐욕에 취하고 흘러 미쳐 날뛰면서 깨닫지 못하니 그는 마치 저 고기잡이와 같네, 그들은 나쁜 업으로 인해 지독한 괴로움의 값을 받으리라. <집아합경>

음식을 대할 때에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며, 마땅히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라. <불유교경>

시민선원 하안거 결제

동도사부산포교원(원장 태응스님) 시민선원은 8월 17일까지를 일반불자들의 하안거 기간으로 설정하고 21일 결제에 들어간다.

시민선원은 스님들이 여름 장마철 기간인 90일동안 한 곳에 머물며 수행정진 하는 하안거를 불자들에게도 적용, 기간동안 일정한 참선, 기도, 묵언 등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은 매일 오전9시~오후4시이며 동참비는 5만원이다. (051)816-2241



국보 50호 도감사 해탈은. 건물의 정면에 '월출산 도감사(月出山道峯寺)'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선덕사유적전시관은 25일 월출산으로 문화탐사를 떠난다.

제1회 불교사경대회

전통 서예문화의 계승과 신행 활성화화를 위한 제1회 불교사경대회가 동방연서회(이사장 김운현)와 조계종총무원의 공동주최로 열린다.

승려부와 일반부 구분 시행되는 이 대회는 6월10일 예선, 6월20일 실악산 영시암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로 나뉘어 개최된다. 우수 사경작품은 화엄사 등 국내 대가람에 석각(石刻) 보존될 예정이다. 참가희망자는 25일까지 작품을 출품하면 된다. (02)733-0131

외국스님이 외국어 법회

연등불교국제화관(원장 원명스님)은 매주 일요일 저녁6시 외국어 법회를 개최한다.

외국인 스님들이 법사로 초청돼 예불, 불교의식과 기초교리 강좌를 외국어로 진행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참석 가능해 불심도 다지고 외국어와 불교 상식을 함께 익힐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 기대. (02)735-5347

지장성지 구화산 순례

중생을 모두 제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지장보살이와 청송받았던 신리왕자 김교각 스님이 수행했던 성지 구화산. 불교방송은 6월18일 교각스님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중국 구화산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6월7일 일정

신행수첩

으로 떠나는 이번 성지순례는 상해 보타산 영파 천동사 아유왕사 영은사 항주 구화산 남경 등을 둘러보게 된다. 참가비는 총 1백22만원이며 동참하고자 하는 불자는 불교방송에 신청하면 된다. (02) 726-5702

금산사 사찰생태기행

맑고향기롭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은 25일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스님)로 '사찰환경 생태기행'을 떠난다.

청량한 자연의 품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산사를 찾아가 사찰주변의 생태를 조사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돌아오는 길에는 모악랜드 건설현장에 둘러 지역개발이라는 명분앞에 오염되는 청정 수행도량의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02)741-4696

자연 및 문화사랑 탐사

무등산 선덕사(주지 행법) 유적탐사단은 25일 호남대 이두포교수(생물

학과)와 행법스님을 안내자로 자연 및 문화탐사를 떠난다.

숲과 새들, 그리고 들에 핀 꽃'이란 주제로 떠나는 이번 탐사는 무안군 용원리와 전남

농업박물관, 월출산 도감사(시진) 등지를 둘러보게 된다.

대자연 속의 식물과 동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모습에서 자연사랑의 소중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이 탐사의 목적.

회비 2만5천원(점심공양 포함) 8시 30분 출발. (062)264-8024.

북동포 돕고 선화도 감상

우리의 반쪽 북극 2천4백만 동포들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다.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동체대비심을 발휘하여 북동포를 돕는 자비보시의 보살행, 이타행을 실천함으로써 동포와 민족을 구하고 평화통일을 완성하는 진정한 보살행에서 나서고 있다.

이에 부응해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스님)는 6월1일 세종문화회관 제3 전시실에서 '법주스님 선덕초대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불사장에서 선화도 감상하고 북동포도 돕자. (02)735-5558

나의 수행일기



박희청

금강경 독송으로 '하루 시작'

말·생각·행동도 '가르침' 따르려 노력

이렇게 불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후에 수많은 스님과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며 불법을 배우는 생활에 뜻을 두게 됐다. 그러다보니 이기영박사님도 만나리게 되고 한국불교 연구원 이사로 활동하며 좋은 인연속에 신학하게된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한다.

5년전에 천도재를 지내기 위해 상의하러 갔던 포항 금강경독송회와 인연이 돼 <금강경> 독송을 생활화하게 됐다. <금강경>을 독송하다 보니 음식법제인 상의실업

은영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 같다. 직원들을 한가롭게 대하려고 노력했더니 열심히 자기 일처럼 해주는 것은 물론이다.

불교에서는 철저히 이성에 호소하여 그것이 확신으로 자리잡고 저질로 바깥을 향해 우리



야 하며 믿는대로 실천해야 하는 가르침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신행수첩(信解行證)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 아닌가. 그러나 비록 익숙한데 알고 있었던 가르침일지라도 그것이 생활속에 전개되면서 전혀 새로운 의미로 부각되기도 해 <금강경>에 담겨진 그 육원(願)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경을 읽는 공덕에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털어버리려고 애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강경>을 독송하는 그 기운과 마음의 힘은 참으로 대단하다.

나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금강경>을 일독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만큼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맑아지고 활기차 진다. 하는 일도 더욱 빛나는 느낌이다.

'부처님 시봉 잘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염원을 가슴에 새기며 모든 사람들이 이 <금강경>을 잘 읽어서 세세 생생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짓길 발원한다. 나의 평생 서원이다.

<상의실업 대표>

TEL:337-0296 FAX:338-9640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팔만의 지혜를 담아낸 온 인류의 문화유산, 고려팔만대장경을 한권으로 읽는다!

팔만사천 번뇌의 바다를 떠다니는 우리를 중생을 위해 팔만사천 법문을 연 부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담았다. 해서 팔만대장경이라 불리는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 고려팔만대장경. 동굴군의 침략에 맞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한자한자 쓰느라 후국의 염원으로 벗어났기에 팔백년의 시공을 훌쩍 뛰어넘어 훑길 하나 없이 생생히 살아 숨쉬는 고려팔만대장경. 해서 세계는 전 인류가 보전해야 할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확립하였다. 팔만대장경은 단지 불교사상의 결집체만은 아니다. 그 속에는 백전불굴의 기개와 뛰어난 문화창조자로서 우리 민족의 기상이 담겨 있으며 오묘한 우리 전통과학의 정수가 체현되어 있다. 이 책은 이처럼 방대하고 중요한 팔만대장경의 구조와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조감해줌으로써 독자 여러분에게 우리 문화의 향기와 자긍심을 듬뿍 안겨줄 것이다.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오백 년의 역사를 낱알이 읽는다

조선 태조에서 순종에 이르는 500여년간의 왕조사를 한권으로 묶은 이 책은 조선의 역사에 관한 일문서다. 각 왕통의 기개도와 함께 조선의 과학지식,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당파싸움 등 조선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박영규 지음 신국판 468쪽 10,000원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고려는 어떤 나라였는가?

우리 역사의 허리에 해당하는 고려왕조. 그러나 고려의 진면목은 젊은 인간에게 가려 있다.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은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국가이자 북방을 경영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고려. 그 강인했던 역사를 왕들의 치세를 중심으로 소상히 알아본다.

박영규 지음 신국판 488쪽 10,000원